

장백산천지

제 122 호

2009년 1월 30일

금요일

사부님께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흑룡강 대법제자 드림



산동성 대법제자 드림



북경 대법제자 드림



장춘 대법제자 드림



할빈 대법제자 드림



연변 대법제자 드림

중공은 “음력설”을 “춘절”로 고쳤다

중화의 전통적인 “음력설”은 정월 초하루만 쇠는 것이 아니라 설달 초 8 일(랍팔절)부터 시작하여 정월 15 일(원소절)에 끝난다. 음력설은 주로 천지신명의 보우에 감사드리고 래년을 위해 복을 빌며 선조에 제를 지낸다.

정월 초하루, 사람마다 일찍 일어나 촛불을 켜놓고 폭죽을 터뜨리며 술과 과일 등 제물을 차려놓고 하늘, 땅, 조상들에게 절하며 새해에 대길하기를 바란다. 또한 절의 재회, 희극공연, 룽춤, 사자춤, 무술, 잡기 등 풍부하고도 다채로운 활동을 벌린다.

1949년 중공이 집정 직전, 전통적인 “음력설”을 “춘절(春节)”로 고치고 기타 정월대보름, 청명, 단오, 추석등 전통적명절을 죄다 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정한 “5.1”, “6.1”, “7.1”, “10.1”등 정치적인 기념일은 휴식하고 있다.

이리하여 중공은 “무신론”을 고취하고 당문화를 주입시켜 《신을 공경하고 신의 은혜에 감

사를 드리던》 “음력설”을 《태양, 어머니, 은인》이고 《위대, 영광, 정확》 하며 《3 개 대표》인 공산당을 가송하는 “춘절”로 전락시켰다.

지금 중공의 “춘절만회”는 정치적이면서도 변태적이여서 민중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신운의 “신년만회”는 정체롭고도 감동적이어서 전세계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절찬을 받고 있다. 왜서 인가? 그 것은 신운의 “신년만회”가 당의 문화를 숙청하고 전통문화를 재현했기 때문이다.



대법제자예술작품 《서약 (誓約)》



화가 : 소평、동석강、여래

창작일 : 2003년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간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러운데 과연 몇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있을가? 뭇신들은 주불(主佛)을
따라 서약하고 내려왔노라. 세상에 오기전의
서언을 아직도 가슴 속에 명기하고 있는지?

이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심사 숙고하게 하며 생명근원의 영원한 기억을 회고하게 한다

뢰물을 받지 않는 질량검사원

파룬궁학원인 신정은 한 합작기업의 질량검사원이다. 그가 기층에 내려가 감사할 때마다 각 곳의 소장들이 잘 초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혜물을 주는 것이였다. 신정은 혜물을 거절하면서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요구대로 본직 사업을 잘 한다면 우리들의 합작은 꼭 즐거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시: 매화

엄동설한에 곱게 핀 너

찬 서리 떠이고

웃는구나

꽃향기 만 천하에 풍기니

한풍의 비명속에 서

어찌 소요할손가

인간을 보라

봄맞이 대지엔

환희로 들끓네.

《9 평》을 전하는 대학교 교수

동북 모 대학 외국어 교수인 리문(가명)은 《9 평공산당》을 참답게 읽고 나서 동료들에게 『이 책은 정말 잘 썼소. 말한 것은 죄다 사실이요. 공산당은 바로 대 사교이고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소. 하늘이 어찌 공산당을 멸망시키지 않겠소.』라고 말했다.

리문은 늘 동료들에게 《9 평공산당》을 이야기 해주고 중공 조직에서 퇴출하라고 권고했으며 그들을 도와 “3 퇴(퇴당, 퇴단, 퇴대)”성명을 발표해 주었다.



신기한 장자석

아래 그림은 2002년 6월 귀주성 평당현 장포향에서 발견된 2억 7천년 전 장자석(藏字石)이며 5백년 전에 터져나온 큰 돌 절단면에 큰 한자로 《중국공산당망》이라고 씌여져 있었다. 이 기의한 광경을 100여 곳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사이트에서 보도했는데 누구나 《망》 자를 말하지 않고 《중국공산당》 다섯 글자만 말했다.

오늘 이 《장자석》은 사람들에게 천기를 예시해주고 있지 않는가? 공산당의 멸망은 하늘의 뜻이다. 중공의 멸망은 곧 닥쳐올 것이다.



퇴당、퇴단、퇴대방법

(퇴당성명은 필명、가명으로 해도 됨)

* 이메일로 성명발표 tdsc01@epochtimes.com

* 동태망에 들어가 tdsc01@epochtimes.com
에 연결하기.

* 퇴당전화: 1-800-886-0070

1-800-186-0070

팩스(传真): 001-702-248-0599

* 잠시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공중장소에
큰 글씨로 탈당성명을 써서 붙여도 된다.